

■ 대인시장문화예술인협회의 창립, 7~14일 '대인배 연례보고'전



홍희란 작 '나는'



1950년대 형성된 대인시장은 광주의 대표적 재래시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백화점과 대형 마트로 몰리면서 많은 상인들이 떠나 날로 쇠락해 가고 있다. 대인시장에 변화가 생긴 건 지난 2008년 광주비엔날레의 전시 장소로 쓰이면서였다. 먼지만 쌓여있던 빈 점포에 화가들이 몰려들더니 알록달록 그림이 그려졌고, 시장을 찾는 사람도 늘었다. 광주 도심공동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대인시장 빈 점포들이 전시 공간으로 활용

입주작가와 대안공간이 만나 대인시장이 활짝

되고, 시장 상인과 시민들이 예술과 교감하는 공공미술의 장으로 부활하게 된 것이다. 최근 대인시장에 입주해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들과 대안공간 운영자들이 힘을 합쳐 시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대인시장문화예술인협회(회장 조승기·이하 협의회)는 오는 7~14일 대인시장 '시장 속 박물관'에서 협의회 창립전인 '2011 대인배 연례보고'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영숙·고재근·김강석·김영설·김탁현·박문중·박희연·신양호·신

호윤·윤남웅·이기성·조수진·조승기·채지운·최양선·홍희란·권승찬씨가 참여해 20여 점의 신작을 발표한다. 그동안 대인시장의 문화 행사들이 광주비엔날레 제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광주문화재단 등 관 주도로 진행됐다면 이제는 협의회를 통해 작가들 스스로 프로그램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 협의회는 대인시장에 작업실을 두거나 과거 이 곳에서 작업을 했던 작가들을 중심으로 꾸려졌고, 정회원 20명, 준회원 4명, 명예회원 8명 등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참여 작가들의 장르도 회화, 조각, 도자기, 천연염색, 설치, 금속공예 인형 제작 등 다양하다. 또 대안공간과 전시공간인 '미테' '우드로' '매화점' '무화골' '도도공방' '영상공작소 산이들' 등과 대인시장에 있는 잡지사 '월간 전라도 닷컴'도 협의회에 참여했다. 다양한 작가와 전시 공간, 잡지사가 결합된 것은 협의회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협의회는 내년에 전국 순회전시도 기획하고 있다. 또 타지역 대안공간과의 교류사업과 함께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다른

지역 작가들 대인시장에 입주시키는 등 대인시장은 국내 대표 예술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의미적인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승기 회장은 "작가들 대부분이 개별적 활동이나 개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협의회를 통해 대형 전시와 이색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것"이라면서 "협의회의 활동은 상주 작가들이 창작에 몰두 할 수 있고, 작품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233-14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윤남웅 작 '달입니다'

DJ의 삶 그린 '인동초처럼...' 다시 무대에

국악 뮤지컬 앙코르 공연... 내일 여수시민회관

전남도립국악단(상임지휘자 박승희)이 김대중 전대통령의 삶을 그린 국악 뮤지컬 '인동초처럼 살리라' 앙코르 공연을 갖는다. 7일 오후 7시 여수시민회관 대공연장. 이번 작품은 지난 8월 김 전대통령의 서거 2주기를 맞아 초연됐던 작품으로 도립국악악단과 어린이국악단원 등 100여명이 출연하는 대형 무대다. 주인공 김대통령 역으로는 임방울국악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춘택씨가 출연하며 대본은 오빠라 전문 작가인 이강순씨가, 안무는 홍보람씨가 맡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품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등 모두 7장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화를 꿈꿔왔던 세 명의 친구가 김 전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25년만에 만나게 되는 '프롤로그-어떤 해후'를 시작으로 '거친 시대가 만들어준 소명', '어둠의 진창에서', '영광의 시대' 등을 통해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김 전대통령의 삶을 천천히 따라간다. 무료 공연. http://www.jpg.or.kr. 문의 061-280-5803, 061-375-692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그 매혹적인 탱고의 세계로...

'파고엘 탱고' 화요일예술무대에... 오늘 문예회관

'흥겨운 탱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탱고 음악을 중점적으로 연주하는 '파고엘 탱고'가 광주문예회관이 주최하는 화요일예술무대에 선다. 6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소극장. 전남대 예술대학 출신들로 구성된 '파고엘 탱고'는 피아졸라로 대표되는 아르헨티나의 탱고 음악과 남미의 음악을 연주하는 그룹이다. 이지는·김현후·김수원·김국주·박다미·최문석·최효진씨가 출연하며 반도네오 연주자 고상지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연주레퍼토리는 '천사의 죽음', '내 마음에 드는 잠강', '천사의 밀통가' 등이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613-83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시회와 함께하는 '방석음악회'

내일 담양 대담미술관, 가수 김도향 초청

담양에 위치한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은 아름다운 건물이 인상적인 공간이다. 지난해 가수 이동원을 초청, 전시실 바닥에 편하게 앉아 노래를 즐기는 '방석음악회'를 열었던 대담 미술관이 올해도 같은 음악회를 진행한다. 7일 오후 6시~8시까지. '내 삶의 끝자락을 지키고 싶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의 주인공은 가수 김도향(사진)이다. 김씨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등 히트곡을 들려주고 관객들과 다양한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다. 전시실에서는 향교리 마을 사람들이 제작한 드로잉과 아트 타일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향교리 예술인 마을 피다'전을 관람할 수 있다. 야외에 설치된 조각작품들도 볼거리다. 참가비 1만원은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사용된다. 오후 6시부터는 차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으며 공연은 7시부터 시작된다. 문의 061-381-008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중앙포 시나리오 공모 '여장의 눈물' 대상

키르기스스탄 작가 잘리 소단베크의 영화 시나리오 '여장(女將)의 눈물'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진행한 '2011 한국·중앙아시아 창작 시나리오 국제 공모전'에서 대상(상금 2000만원)을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신화, 민담, 영웅 서사시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와 트리트먼트(시놉시스 전 단계)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서는 '청평사에-사마르칸트의 눈물'(뮤지컬-권오단)과 '마리아 아베 마리아'(드라마-이윤설)가 각각 시나리오 부문(500만원)과 트리트먼트(100만원) 부문을 수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

30년 전통 광주대표 맛집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2011년을 보내는 의미있는 자리를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송년·신년모임 예약 접수중 |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 3인이상) A코스 38,000원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기본 3인이상) 오찬정식 15,000원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 계림동 흙플러스 건너편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 농협 653-12-003100 - 예금주 박주환